

통권 제 181호

2562
2018

11


계유 이야기
헐뜯거나
욕하지 말라



설화속으로
아도화상의
전법



결망에 담긴 이야기
생각하는 것은
아는 것과
같지 않다

 불교총지중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대저불공 하는 데는 세 가지의 구별 있어
그 공덕도 이에 따라 각각 다른 것이니라
불에 공양하는 자는 큰 복덕을 얻게 되면
속히 보리 성취하여 일체 모든 중생들이
안락함을 얻게 되며 법에 공양 하는 자는
지혜가 곧 증장하고
법의 자재 自在 증득 證得 하고
모든 법의 그 실성을 능히 깨쳐 알게 되면
승에 공양하는 자는 한량없는 복덕성과
일체자량 증장하고 불도 성취 되느니라.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다르마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불교총지중은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밀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므로 이 땅에 불국정토를
염원합니다.



십선성취 _ 30

육바라밀(2)
- 정진·정려·반야
_ 덕현



독자기고 _ 60

뮤지컬 '시카고'를
보고와서
_ 여순애



로드를 찾아서 _ 62

불탑의 나라
미얀마를 가다(1)
_ 우연

04 불교이야기

10 마중물

12 계율이야기

16 살다보면

22 향유

28 산책

30 십선성취

34 마음의 등불

38 씨앗 한알

40 애견 칼럼

44 법향기

48 설화속으로

54 디딤돌

56 차향기

60 독자기고

62 로드를 찾아서

68 소통의 공간

72 결망에 담긴 이야기

74 뜻 바꾸기

76 되짚어보기

78 컬러링 만다라세상

도성제 1 - 화경

어진 벗은 초승달과 같다 - 명성스님

헐뜯거나 욕하지 말라 - 법경

최고의 광고, 소중한 인연 맺기 - 이옥경

마음의 디톡스, 불공 - 강동현

계절의 이별 - 김대곤

육바라밀(2) - 정진·정려·반야 - 덕현

이덕삼을 아시나요? - 조소양

오유지족 五有知足 - 석준호

중성화 수술 - 권도형

회사·불공·실천 삼위일체가 되어야 - 이타심

아도화상의 전법 - 보현

기도 - 지현

차 도구의 중요성 2 - 김정애

뮤지컬 '시카고'를 보고와서 - 여순애

불탑의 나라 미얀마를 가다(1) - 우연

고통은 나쁜 것이라는 착각 - 법상 스님

생각하는 것은 아는 것과 같지 않다 - 법일

사실단 四悉達 - 김재동

생전에수 生前預修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화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길

인간이란 존재는 여인숙이다.
매일 아침 새로운 손님이 든다.

기쁨, 정말, 웅졸함
스치는 작은 깨달음까지
예고 없이 찾아든다.

그 모두를 맞아들여 대접하라.
설령 그들이 슬픔의 무리여서
그대의 집을 거칠게 휩쓸고
가구를 몽땅 내가더라도

쫓쫓이 한 분 한 분 손님을 모셔라.
그들은 그대를 비우는 것도 모른다.
낮모른 새로운 기쁨이 빈 자리에 들도록.

- 마가스님 「알고 보면 괜찮은」



도성제 1

화령

불교총지종 교육원장

철학박사

정심사 주교



사성제의 마지막은 도성제입니다. 도성제는 열반에 이르는 방법을 설해 놓은 것입니다. 불교의 궁극적 목적인 열반을 얻기 위해서는 도성제를 실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 도성제를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원리에 비유해 보면 치료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성제를 통하여 고의 실상을 파악하고 집성제를 통하여 고가 발생하는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고의 원인을 제거했을 때 어떠한 상태에 있게 되는가를 나타내 보인 것이 멸성제입니다. 그리고 그 고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이 도성제로서 나타나 있습니다. 즉 멸성제를 실현하는 방법이 바로 도성제인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도성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비구들이여! 정견^{正見}·정사유^{正思惟}·정어^{正語}·정업^{正業}·정명^{正命}·정정진^{正精進}·정념^{正念}·정정^{正定}이라고 하는 이 여덟 가지의 신성한 도[팔지성도^{八支聖道}]야말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게 하는 도에 관한 신성한 진리[고멸도성제]이다.



말하자면 정전에서 정정에 이르는 여덟 가지의 신성한 도인 팔정도라는 것이 바로 고를 멸하게 하는 도성제라는 것입니다. 불교의 궁극적 목적은 고로부터의 해탈입니다. 그리고 고로부터 해탈하여 열반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이 도성제입니다.

《율장》〈대품〉에 의하면 부처님께서는 녹야원에서 초전법륜을 굴리실 때 다섯 비구들을 상대로 중도에 대해 설명하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아, 출가자들이 결코 가까이 해서 안 되는 두 가지 극단이 있다. 두 가지란 무엇인가? 하나는 여러 가지 애욕에 빠져 그것을 즐기는 것이니 그것은 열등하고 천한 범부의 짓으로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 되는 바가 없다. 다른 하나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니 이 또한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 되는 바가 없다.

비구들아, 여래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는 눈을 뜨게 하고 지혜를 생기게 하며 걱정, 증지, 등각, 열반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먼저 욕락과 고행의 두 극단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 되는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익 되는 바가 없다는 것은 괴로움을 버리고 열반을 얻는 데에 도움

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두 극단을 버린 중도로써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 눈을 뜨게 하고 지혜를 생기게 하며 걱정, 증지, 등각, 열반에 이르게 하는 중도의 여덟 가지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눈을 뜨게 하고 지혜를 생기게 하며 걱정, 증지, 등각, 열반에 이르게 하는 중도를 깨달았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성스러운 여덟 가지의 도를 말하는 것이다. 즉, 정전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 그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여래가 깨달을 수 있었던 중도이며, 이것이 눈을 뜨게 하고 지혜를 생기게 하며 걱정, 증지, 등각, 열반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도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선택하신 실천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입니다. 세간적인 욕락도 버리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고행을 버리는 것이 중도인데, 그것을 여덟 가지의 좀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펼쳐 놓은 것이 팔정도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처럼 다섯 비구들을 상대로 처음으로 설법을 하실 때에 먼저 중도를 말씀하시고, 다음으로 열반에 이르는 방법으로서 팔정도를 거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정도는 곧 중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성제의 가르침에 의하면 집성제에는 고의 원인으로서의 갈애를 들고 있습니다. 멸성제에서는 갈애가 멸한 상태인 열반이 설해져 있습니다. 즉, 멸성제로서의 열반을 얻기 위해서는 갈애가 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갈애를 소멸하는 방법이 사성제의 마지막인 도성제에서 설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는 팔성도(八聖道), 팔진도(八眞道), 팔직도(八直道), 팔정행(八正行) 등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팔정도는 열반에 이르게 하는 성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팔성도라고 하는 것이며, 또 열반에 이르는 길은 허망하고 샷된 길 아니기 때문에 팔진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치우치지 않은 곧은 길이기 때문에 팔직도라고 하는 것이며, 또한 바른 행위가 되기 때문에 팔정행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팔정도에는 성스러우며 진리에 이르는 바른 길이고 바른 행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을 강조했지만 불교의 기본 수행은 어디까지나 팔정도의 실천이 주가 됩니다. 육바라밀에서는 보시나 인욕 등의 사행이 강조됨으로써 더불어 사는 중생들을 배려한 측면이 있지만 불교수행의 기본은 항상 팔정도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른 견해를 지니고 바르게 생각하며 바르게 말하고 바른 행동을 하며 바른 생활 수단을 가지고 항상 자신의 마음을 직시하며 선정에 들기 위하여 부지런히 정진하는 것이 팔정도입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수행이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1

모든 일의 근본은 마음이다.
마음이 주인 되어
모든 일을 시키고 세상을 만든다.
샷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허물과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수레바퀴가 앞선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 쌍서품(雙師品) -

어진 빛은 초승달과 같다

명성스님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어느 날 ‘승가라’라는 젊은 바라문이 부처님께 문안드리고 여쭙었다.

“고타마시여, 착하지 않은 빛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비유하면 달과 같나니라.”

“착한 빛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또한 달과 같나니라.”

“어찌하여 착하지 않은 사람과 착한 사람을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착하지 않은 빛은 보름이 지난달과 같아서 점차 어둠을 더해 가는 사람이고, 착한 빛은 초승달과 같아 매일 밝음을 더해 가는 사람이라.”라고 말씀하셨다.

이 세상을 살면서 누가 저 새벽하늘에 초승달과 같은 빛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복잡한 현대사회가 주는 온갖 종류의 유혹과 세상인연에 매이고, 탐진치, 삼독심에 빠져 세월을 보내다보면 보름달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태도를 부처님께서 네 부류로 나누어 설명하셨습니다.

첫째는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나가는 사람,

둘째는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가는 사람,

셋째는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나가는 사람,

넷째는 밝은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첫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은 현재의 인생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워 악심을 품고 더욱 악행을 행함으로써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둘째, 어둠에서 밝은 곳으로 가는 사람은 비록 신분이 천하거나 가난하고 배운 게 없는 등 모든 조건이 불행하더라도 능히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으로서 선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곧 좋은 씨앗을 심어 미래에 좋은 과보를 받을 사람입니다.

셋째, 부류의 사람은 지위가 높고, 부잣집에서 태어나 경제적, 사회적 여유와 신체가 건강하여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지만, 마음이 교만하여 남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하고 욕설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넷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은 부유하고, 배움도 많고, 교양 있고, 신체도 건강해서 남부러울 것이 없으면서 가난한 사람을 보면 배풀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뽐내지 않으면서 겸손하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네 부류 중 어디엔가는 속합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부처님의 위와 같은 말씀을 지침으로 삼아 자신을 통찰하고 행동한다면 초승달과 같은 어진 빛, 밝음으로 나아가는 나, 그리고 우리가 될 것입니다. 🙏

헐뜯거나 욕하지 말라

법경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소장

철학박사

법천사 주교



청정한 계율 _ 42

입으로 짓는 구업^{구업} 가운데 거짓말하는 망어^{망어}는 중죄^{중죄}의 바라이법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 다른 구업은 대부분 경죄^{경죄}의 바라제법에 속한다.

구업의 바라제법 가운데 헐뜯거나 욕하는 것을 금하는 계가 있다. 이를 휘자어매계^{휘자어매계}라 한다. 휘자^{휘자}는 헐뜯는 것이고, 어매^{어매}는 욕하는 것이다. 휘자어매계는 바라제법 2조에 해당하며, 그 인연담은 다음과 같다. 『사분율』의 내용이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실 때 육군비구들이 대중들의 분쟁에 끼어들어 그들의 문벌, 재산, 지식, 직업, 신분 등 신상에 대해서 야비하게 공격하면서 그들을 망신을 주니 다른 비구들이 창피하고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를 두고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계를 제정하셨다.

“만약 비구 비구니들이 남을 헐뜯거나 욕설을 하면 바라제법이다.”

남을 헐뜯거나 욕설을 해서는 안 된다. 참되지 않으며 바르지 않은 행이기 때문이다. 사람이란 무릇 참되고 발라야 한다. 참되고 바른 것은 출가자나 불자에게만 해당되는 덕목이 아니다. 수행자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다.

특히 인신공격은 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악업을 쌓는 길이며,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바른 행이 아니며 청정한 행도 아니고 참다



운 수행자의 모습도 아니다. 인신공격은 수행자의 위의(威儀)와 거리가 먼 것이다.

울장에서 인신공격이란 생김새를 가지고 애꾸눈, 절름발이, 곱추, 난장이, 똥똥이, 눈 봉사, 귀머거리, 병신, 꺾다리, 대머리, 얼간이 등이라 부르며 장난으로 말하고 사람을 놀리는 것이라고 한다.

말은 그 사람의 됃됨이를 나타내는 척도다. 인격의 바로미터가 자신의 말 속에 있다. 또한 한 치의 혀끝에 지옥이 있으며, 한 마디의 말 속에는 십계(十戒)가 펼쳐져 있다.

그러므로 불공과 기도, 정진 수행 가운데 함부로 말하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 이를 신언(新言)이라 한다. 『오분율』에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사람이 사는 동안 도끼가 입안에 있어
온갖 악한 말로 스스로 자기 몸을 찌네.
책망해야 할 것을 도리어 칭찬하고
칭찬해야 할 것을 도리어 훼방하여
스스로 재앙을 받고 결국 즐거움 없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도로 주워 담을 수 없으며, 순간의 실언(失言)은 평생 좌우한다. 무서운 지옥행이 입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법념처경』에서도 말을 경계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감로수와 독약은 입안에 있으니
진실한 말은 감로수요 거짓말은 독약이네.
감로수는 버려두고 독약을 가져가니
자기도 멸망하고 다른 이마저 해치네.

혈뜯고 상처주는 말, 욕설은 마땅히 삼가하고 착한 말 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 『화엄경』의 내용이다.

보살은 독하고 해되는 말, 추악한 말, 남을 괴롭히는 말, 성내고 원한을 품게 하는 말, 천한 말, 이러한 말들은 모두 버리고, 오로지 윤택한 말, 부드러운 말, 즐거운 말, 듣는 사람이 기뻐할 말, 남의 마음에 잘 드는 말, 예의 바른 말, 진실한 말, 옳은 말, 법도 있는 말, 순한 말, 이치에 맞는 말하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마땅히 보살은 회롱하는 웃음조차도 항상 살피고 생각해서 행하고 말해야 한다.

보살이란 다른 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다른 이를 혈뜯거나 욕한다면 이는 수행자나 보살이라 말할 수 없다.

혈뜯거나 욕하지 말자. 계를 지키는 수행이고 생활 속의 불공이며 기도이다. 1

다음 호에서는 '이간질 하지 말라'는 양설계(兩舌戒)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광고,
소중한 인연 맺기

이옥경

수필가·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영화나 드라마가 화제에 오르면 그 작품을 찍었던 곳도 덩달아 명소가 된다. 내가 살고 있는 강릉에도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다. '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들이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너와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 이 멋진 대사를 남긴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 주문진 영진해변의 방사제가 대표적이다. 지금은 한풀 꺾였지만, 도깨비 김신(공유)이 빨간 목도리를 두른 은탁(김고은)에게 메밀꽃을 건네는 명장면을 연출했던 이곳은 지난겨울만 해도 같은 모습으로 인증샷을 남기려는 인파로 넘쳐났다.

주문진해변에 설치된 이색 버스정류장도 젊은 친구들, 특히 방탄소년단의 팬들이 성지순례를 하듯 필수 코스로 다녀가는, 인기 많은 곳이다. 방탄소년단 정류장으로 불리는 이곳은 실제 정류장이 아니라 K-POP 최초 미국 빌보드 음반 차트 1위를 기록한 방탄소년단의 앨범 'YOU NAVER WALK ALONE' 타이틀곡 '봄날'의 뮤직비디오 무대가 됐던 시설물이다. 앨범 재킷 사진으로도 쓰인 이 버스 정류장은 뮤직비디오 촬영이 끝나면서 철거됐으나 유명한 영화나 드라마, 연예인들의 발자취를 찾는 마니아층을 겨냥해 앨범 재킷 사진과 같은 모습으로 같은 장소에 재현해 놓은 일종의 포토존인 셈이다.

신미양요 때 군함에 승선해 미국으로 가게 된 소년 최유진(이병헌)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임당동 성당을 찾는 관광객도 심심치 않게 이어진다는 소문이다. 이곳은 1955년에 준공돼 6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뽀족한 종탑과 지붕 장식, 정교한 내부의 문양과 몰딩 장식, 아치 형태의 창문과 부축벽(扶柱壁)을 이용한 입면 구성 등 당시의 외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문화재적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서 지난 2010년에 우리나라 등록문화재 제457호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유서 깊은 곳으로, 드라마 이전에도 가톨릭 신자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모래시계> 촬영지인 정동진도 있다. 무명(無名)의 정동진은 바닷가 작은 탄광촌. 강산이 두 번 바뀌고도 남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이곳 정동진을 바닷가에 위치한 우리나라 유일의 기차역으로, 일출의 명소로 널리 알려진 것도 <모래시계>의 영향력이었다.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로 안방극장에 웃음을 주었던 <그녀는 예뻤다>로 유명세를 탄 강문해변도, 40%가 넘는 높은 시청률을 보였던 드라마 <가을 동화> 속 준서와 은서 남매의 집(지금은 레스토랑 운영 중)도, <황진이>, <한성별곡>, <일지매>, <공주의 남자>, <식객>, <사임당, 빛의 일기> 등 시대극의 단골무대인 오죽헌과 선교장, <아이스 2>의 경포해변, 영화 <내 아내의 모든 것>을 담아낸 하슬라 아트월드 등등...

<1박 2일>이나 <무한도전>, <알쓸신잡> 같은 간판급 여행 예능 프로그램이 다녀간 곳도 마찬가지다. 지역 홍보는 기본이요, 경제적 효과는 덤이다. 드라마든 영화든 예능이든 지자체에서 고가의 제작비 협찬을 아끼지 않고 프로그램 유치에 공을 들이는 것도 그런 이유에 서일 것이다.

이야기가 장황해졌다. 그럴만한 까닭이 있어서다.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이겠거니... 때문에 자타 공인, 산과 바다와 호수가 어우러진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서 카메라를 갖다 대기만 해도 작품이 되는 곳으로 정평이 난 우리 동네 사설을 길게 늘어놓았다. 얼마 전에 본 짐 자무쉬 감독의 영화 <패터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다.

영화 <패터슨>에는 드라마나 영화, 예능 프로그램 촬영지라는 대대적인 홍보나 안내판을 세우고 포토 존을 설치하는 요란스러움이 없었다. 대신에 시를 쓰는 버스 운전사 '패터슨'의 일상을 통해 평소 자무쉬 감독이 존경해 마지않던 시인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의 고향인 미국 뉴저지 주의 '패터슨 시'를 애정 어린 눈으로 속속들이 그려내고 있다. 영화에서 패터슨 시에 살고 있는 주인공 패터슨이 영화와 제목이 같은 서정시집 '패터슨'을 읽는 장면은 진솔한 감동과 함께 패터슨 시

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잔잔하면서도 긴 여운이 어스레 나를 여행자로 만들어 패터슨 시의 구석구석을 걷게 한 것이다.

또 있다. 감독은 실제로 패터슨 시에서 나고 자랐거나 그곳과 연관이 깊은 예술가들의 이름을 여러 명, 반복적으로 되풀이한다. 루 코스텔로 공원이 1950년대를 풍미한 미국의 코미디 배우 '루 코스텔로'의 이름을 땄다는 것도, 코난 오브라이언 쇼의 밴드인 <지미 비비노 앤 더 케이블 밴드>의 지미 비비노가 패터슨 시 태생이라는 것도, 핑크의 대부 '이기 팝'이 패터슨 시에서 공연을 했다는 것도 무덤덤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영화 속 도시민들의 일상을 통해 동질감으로 녹여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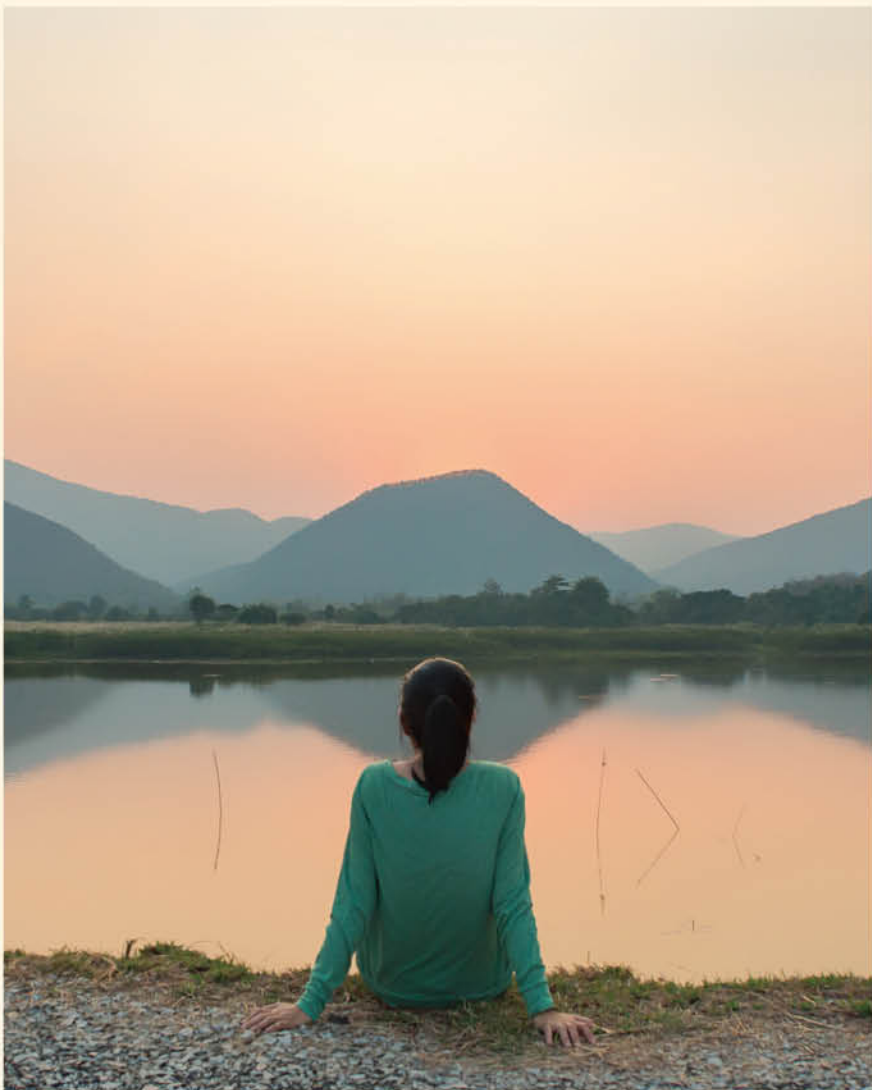
영화는 아름다움이 대단한 사건이나 비범한 그 무엇이 아닌 우리 주변, 지극히 소소한 일상에 있다고 이야기한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요란하고 화려한 방법이 아니라도 본연을 잃지 않는다고 말이다. 겸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 하는 일이야말로, 열반에 들기 전 부처께서 남기신 불방일(不防逸)(쉬지 않으면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니 방심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이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한다. 평상심이 도(道)라고 했다. 자신과 인연이 닿은 것이라면 사람이든 사물이든 모든 것을 진심으로 대하고 최선을 다할 때 불교적 삶이 완성되는 것처럼, 작은 일이라도 솔선수범 같고 닦아야 성불의 길에 다다를 수 있는 것처럼, 작은 인연에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인연을 소중하게 이어나가노라면 인기몰이 중

인 영화나 드라마, 잘나가는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북 치고 장구 치지 않아도 엄지 척! 낮은 곳으로 물 흐르듯,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좋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속속 이어질 것이라고, 나는 굳게 믿는다. ▲



마음의 디톡스, 불공

강동현
관성사 교도



머칠 앓고 나니 몸이 부실한 것이 나이 탓인가 싶었다. 골골거리고 출근을 했는데 선배가 살은 빠지고 기운은 좋아진다고 나한테 무엇인가를 권해 주었다. 자기가 해 보니 좋다고, 묻지도 말고 일주일만 먹어 보라나. 전달 받은 셰이크를 머칠 먹고 나니 기운이 솟는 것 같기도 하고 알송달송 했는데 그게 디톡스란다. 내 몸에 있는 독소를 빼준다고 하는데 또 그것에 혹해서 디톡스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다. 머칠 지나니 온 몸에 두드러기도 나고 편두통도 심해지고 딱 죽을 맛이었는데 그걸 견디면 더 좋은 것이 온다고, 또 꼭 참으라고 해서 아직 참고 먹는 중이다. 몸에 독을 빼는 데도 이런 난리가 없을 만큼 힘들고 지치는데 마음의 독을 빼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 생각하다가, 나도 예전에 마음의 디톡스를 한 적이 있다고 우스갯소리로 말했더니 선배가 “뭘 소린지는 몰라도 힘들었겠지만 결국에는 좋았겠네.”라고 말해주었다. 디톡스 프로그램을 먼저 한 자의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말이었다.

요즘에야 매너리즘에 빠져서 불공이라면 후다닥 의식할 수 없을 만큼 하게 되지만 처음 올바른 불공을 할 때는 참 힘들었다. 내 마음에 든 독들이 얼마나 많은지 속이 뒤집어 지고 눈매도 나빠지고 고운 말도 잘 못하던 때가 있었다. 큰 불공이나 49일 불공을 할 때 미친 듯이 날뛰던 때가 생각난다. 이런 부끄러운 과거는 나만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만큼. 49일 상반기 불공이나 하반기 불공을 하는 것이 겁이 났다. 제 정신이 아닌 것이 아닌가 싶을 만큼 마음은 널뛰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내가 왜 이러고 앉아있나 내적갈동이 심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하기도 싫고 안 하

기도 싫은 이상한 감정들이 휘몰아칠 때였다. 염주 쥐고 있으면 바닥에 머리를 쿵쿵 박을 만큼 졸음이 쏟아졌고, 다리는 저리고 마음이 사나워져서 누군가 싫은 소리를 하면 쏘아붙이기 바빴다. 착한 척 하는 것도 포기하고 싸움닭처럼 쪼아대고 으르렁대던 때였다. 그럴 때면 엄마는 건디라고 했고, 법문이라고 했다. 하심_{下心}하라고 했다. “하심은 나만하나?”고 소리치기도 했다. 스승님들도 그거 건너가면 된다고 너그럽게 다독여 주셨다. 그래서 반항을 하다가도 더 많이 불공하고 더 큰 소리로 진언을 하고 더 자주 바닥에 머리를 찡으며 졸았다. 새벽불공 때는 울면서 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만 두는 게 지켜보는 다른 사람의 정신 건강에 더 좋은 것이 아닐까’라는 말이나 들을 정도였다. 그때, 나는 분명 모든 것과 싸우고 있었고,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상태였던 것 같다. 육 얻어 먹고 불공하고, 불공하고 싸우고, 참 요란했다. 첫 해는 어찌어찌 건디는 것이 목표였다. 내 온 마음을 뒤집고 헤집고 너덜너덜해져서야 한 해가 지났다. 또 새해 불공 때는 더 심해서 7시간 정진할 때는 내적갈등이 폭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온 몸에 화기가 올라서 찝찝했고, 종종 밖에 나가 바람을 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다. 그래도 그걸 건디고 건너 왔다. 불공이 시작되면 날 뛰던 것들이 불공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찾아들어 나중에는 건딘 것이 대견하다고 생각하게 될 정도였다. 그러다가 또 불공하고 또 불공하고 새해 불공하고, 몇 번을 봄날 밭 갈 듯 마음을 갈아엎고 나니 어느 순간에는 고요함이 찾아왔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불공하는 것을 권해도 될 만큼 살아왔고, 건너왔다. 아...

나는 잘 건너 왔다. 지금 생각해 보니 마음의 디톡스를 한 것이 분명한 거 같다. 마음의 독을 빼내는 것. 유독 나만 더 힘든 것이었을까? 내 마음에 독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빼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꼭 해야 하는 일이고 하게 된 것이 잘 한 것 같다. 선배 말처럼 결국에는 좋은 일이 되었다. 엄마나 스승님들이나 오래 절에 다니시는 보살님들은 다 조금씩 겪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조언을 해 줄 수 있었고 그 덕으로 나는 잘 건넜다. 그리고 내 마음의 독을 빼고 나니 복이 찾아 왔다는 생각을 한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고 모두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전국의 보살님들이 계시지 않는가. 그것을 알고 있기에 나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절에 가자고 말을 한다. 총지종가자고 한다. 불공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피아노 배우는 것 보다 덜 힘들고, 수영 하는 것보다 쉽다고 말 한다. 무엇보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들의 시간을 내 주는 대단한 보살님들이 많다는 것을 말한다. 내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절에 가겠다는 마음을 내는 사람이 몇 있다. 나도 묻지도 말고 나 한 번 따라 오라고 말을 한다. 절에 가는 것이 재미있지 않은 딸한테도 가끔은 절에 함께 가자고 말을 한다. 어리니까 마음의 독이 좀 더 적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고, 지금이라도 연습을 해야 혹시라도 나중에 마음의 짐을 어찌할 줄 몰라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나는 절에 다니기를 참 잘했다. 불공을 열심히 한 때가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보니 요즘의 내 불공이 좀 반성이 된다. 몇 해 동

안 몰입해서 한 불공의 여력으로 지금까지 잘 살아 왔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지심으로 불공을 해 볼 생각이다. 또, 좋은 사람들 절에 데리고 가는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해야겠다. 내가 좋은데 다른 사람들한테도 좋겠지. 내가 데리고 간 사람이 마음의 독을 풀려고 나보다 더 많은 내적 갈등을 겪는다면 나도 내 주변 보살님들과 스승님이 그랬던 것처럼 너그럽게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다. 결국에는 좋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



모든 일의 근본은 마음이다.

마음이 주인 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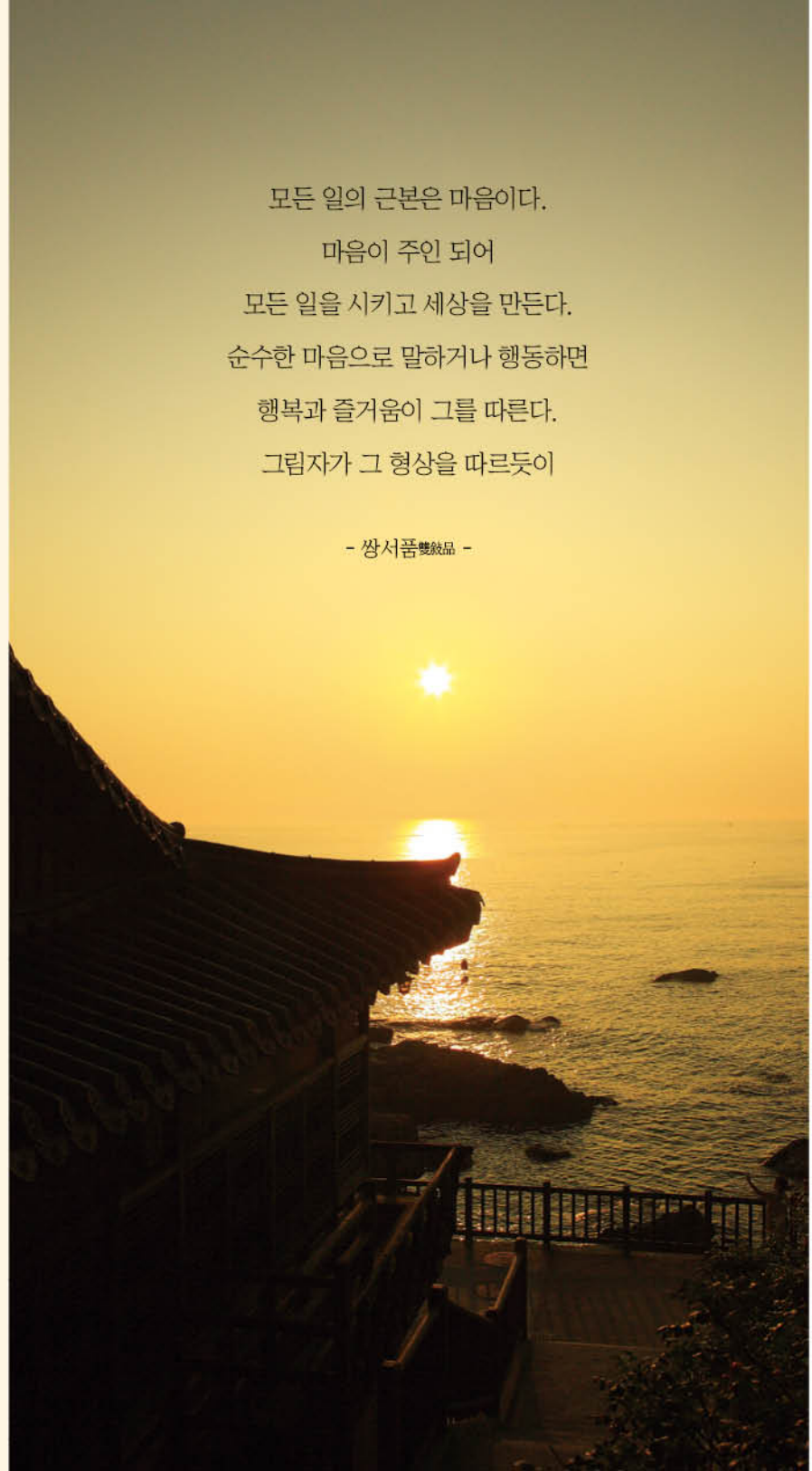
모든 일을 시키고 세상을 만든다.

순수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과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그 형상을 따르듯이

- 쌍서품 雙敘品 -



오늘도 잠들지 못하는 가슴
창가에 세워두고
밤 하늘 달과 별을 찾습니다.

추억이 색을입고 환하게
춤추며 물결이되어 달려듭니다.

호수처럼 잔잔하기만 했었던 마음이
마침내 춤을 추며
입가에 미소를 찾아 냅니다.

언젠가
서로의 가슴에 웃음을 던지며
사랑의 물결을 그렸었던 그 시간들

기억 하시나요?

오늘 이 창가에서
나는 다시 한 번
그때를 떠올리며 갈망 합니다.

언젠가 다시 찾아와
이 잠들지 못하는 밤 하늘에서
별과 달을 그려 보기를...



육바라밀(2)

- 정진·정려·반야

덕현

법천사 전수



정진精進

정진은 잡념을 버리고 불법을 깨우치기 위해 수행에 힘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진은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어떤 사람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진이라면 수행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사회인, 운동선수, 주부 등

누구라도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목표했던 일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다시 마음을 다잡아서 나아가는 것도 정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자입니다. 불자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참되고 올바른 생활을 꾸준히 행하고 다른 이를 위한 보살행을 실천해 나가야 참된 정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려靜慮

정려는 선정과 같은 말로서 참선하여 마음의 내면을 닦아 삼매경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정려는 우리의 마음을 조용하게 통일하여 하나의 대상에 집중시켜 전혀 동요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탐욕과 성냄, 무기력과 흥분, 의심 등 좋지 않은 감정에 늘 사로잡혀 있으므로 좀처럼 마음의 안정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꼬달리지 않으려면 자신의 마음을 늘 다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원숭이와 같이 가볍거나 코끼리처럼 무지막지한 심성을 갖게 됩니다. 마음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바로 선다는 것은 바깥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확고한



신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깥바람에 마음이 곧잘 흔들려서 정작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고 이리저리 이끌려 다닌다면 자신의 몸과 마음은 고달프기만 합니다.

핸드폰이나 텔레비전을 끄고 서원당에 앉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 스스로 진단해봅니다.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하는 일이나 행동이 바른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마음에 고요가 찾아옵니다. 마음의 고요가 지속되었을 때 선정바라밀, 정려바라밀이라고 합니다. 수행을 통해서 평소에 정려바라밀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정려가 지속될 때, 청정한 지계^{持戒}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야 자신이 바로 설 수 있고 마음도 단단해 질 수 있습니다.

반야^{般若}

반야는 지혜라는 말로서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 내는 정신 능력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미혹을 끊고 부처의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야는 배워서 얻어지는 지식과 달리 오로지 진리에 대한 이해로써 생활 가운데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는 요즘 내가 어떻

게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자신의 욕심대로 가르치려고 고집을 부린다면 그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스스로 일어 설 힘을 가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단지 부모는 아이들이 학교나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주는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고, 아이를 대신해서 살아 줄 수도 없습니다. 건강한 부모로서 즐겁게 활발하게 생활하며 옆에 있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자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욕심만으로 아이를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면 그 아이는 능동적이 아닌 수동적인 인간이 되고 맙니다. 오히려 놓아주는 것이 아이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대리만족이 아닌 아이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응원과 칭찬으로 힘을 보태주는 조력자의 역할이면 충분합니다. 또한 부모 역시 자신에 맞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아이에게 좋은 참고서가 되고 영양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머리나 금전으로 아이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말로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반야와 자비가 둘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자비를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따뜻한 마음이고 이해와 용서, 배려와 양보, 좋은 마음, 선한 마음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수행하여 반야바라밀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



이덕삼을 아시나요?

조소앙(趙素昂)
1887 - 1958
독립운동가·정치사상가



曉氣蕭涼雨後天
空庭橫立尙依然
暴風一夜君從倒
萬里遊人亦可憐

효기소량우후천
공정형립상의연
폭풍일야군종도
만리유인역가련

새벽 기운 소슬한 비 개인 하늘 아래
빈 뜰에 가로 선 모습 여전하였는데
폭풍으로 하룻밤새 그대조차 넘어지니
만리 이역 머무는 내 신세도 가련하네

- 조소앙(趙素昂), 『동유약초(東遊略抄)』 제4편 1910년 12월 1일

이 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조소앙 선생이 스물네 살 때 지은 시이다. 성균관에서 수학하다 1904년 대한제국 황실유학생으로 뽑혀 일본으로 간 그는, 8년 간 동경부립 제일 중학교와 명치대 법학부에서 수학하였다. 이때의 유학생 생활 전 과정을 기록한 일기가 바로 《동유약초》이다. 한문으로 쓰여진 이 일기에는 ‘한구본신참(漢本新參) 지식인의 지적 성장과 편력, 그리고 근대학문 학습의 전 과정이 오롯이 새겨져’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1910년 경술국치 전후의 일기에는 일제에 의해 조국이 병탄되는 절망적인 때에 적국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는 자신의 참담한 심정이 곳곳에 드러난다. 그렇다고 그가 무기력하게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한일합병 직전에는 그 음모를 국내에 알리고자 일본 신문의 밀송(密送)을 시도하기도 하였고, 한일합병 성토문을 작성해 국내에 전달하려고 밀사를 파견하기도 했으며, 합병 반대 집회를 개최하려다가 발각되어 20여 일 동안 경찰의 심문을 받기도 하였다.

이후 그에게는 ‘젓은 철식폐면(鐵食廢眠)으로 형용이 초췌하고 심신이 찢기는 듯한 우울한 나날’이 계속되었다. 게다가 일본 순사에 의해 일동일정을 감시 당하는 처지에 몸의 병까지 겹치면서 자신과 조국의 비극적 운명 앞에 통곡하는 날이 많았다. 그 와중에 또, 주일 전권공사관(駐日專權公使館) 뜰에서 있던 깃대가 거센 비바람에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였다.

깃발을 매다는 ‘노대 고목(老高大木)’으로 만든 그 깃대는, ‘우리 4천 년 역사를 대표하고 우리 2천만 동포의 영예를 드날린 독립 전권공사관’의 큰

깃발을 거는, 그야말로 독립 국가의 상징물이었다.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이 침탈된 1905년 겨울에 조민회(趙民興) 공사가 쓸쓸히 본국으로 돌아가긴 했으나, 그래도 그 빈 뜰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던 것이 하룻밤 사이에 쓰러지고 말았던 것이다.

이 날 일기에는, 쓰러진 깃대에서 나는 소리가 ‘마치 호소하는 듯, 원망하는 듯 더욱 처량하게 느껴져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적고 있다. 비바람에 쓰러진 망국의 공사관 깃대목을 보면서, 정녕 나라 잃은 자의 가련하고 비통한 심정을 견딜 수 없었으리라.

5, 6월에 피는 은방울꽃을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길을 멈추고 앉아서 넓은 이파리를 들추지 않으면 그 순백의 아름다움과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작년에 이준익 감독이 은방울꽃같은 박열(朴烈)을 드러내 보여주기 전까지 그의 존재를 알 수 없었듯이, 조소앙 선생이 지은 독립운동가들의 전기집 《유방집(遺芳集)》에도 독립의 밑알이 된 꽃다운 인물들이 숨어 있다. 그 중에 우리는 과연 몇 분의 이름과 행적을 알고 있을까? ‘유방(遺芳)’이라는 책이름처럼 그 아름다운 이름을 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3.1운동 100주년이 다가오고 있는 호국보훈의 달 6월에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내가 죽어도 반드시 뜻을 이을 사람이 있을 것이니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랴’ 사형대에서도 당당하게 외쳤던 의병장 이은찬(李殷燦), 평양감옥에서 교수형을 당한 뒤에 일인 의사들의 해부용으로 넘겨졌던 통한의 채응언(蔡應彦) 선생, 창덕궁 금호문에서 총독 사이토를 처단하려다 실패하여

교수형에 처해졌던 송학선(宋學先) 의사 등이 거기에 있다.

그리고 복수초(福壽草)처럼 아름다운 청년 이덕삼(李德三)이 있다. 그는 열다섯 살부터 상해임시정부의 밀령을 전하는 전체사(傳達使)로 활약했고, 군자금 전달하는 일을 하다 18개월의 옥고를 치루었다. 또한 병인의용대(丙寅義勇隊)에 들어가 결사항전하며 전과를 올렸고, 감옥에 갇힌 동지들을 구하려고 일경과 교전하다가 다리에 총상을 입기도 하였다. 순종황제 인산일에 일제 요인과 밀정을 암살하기 위해 잠입하다 체포되어 심문을 받던 중, 스물세 살 푸르른 나이에 상해 일본영사관 감옥에서 순국하였다.

상해총영사 야다 시치타로(矢田七太郎)가 일본 외무대신에게 보고한 ‘폭탄소지 조선인에 관한 건’이라는 문서에 보면, 간수가 없는 틈에 그가 죄수복에 부속한 노끈으로 목을 매어 자살한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다. 장례는 여운형(呂運亨), 안공근(安恭根) 등에 의해 독립운동가 장으로 치러졌으며, 상해 정안사(靜安寺) 만국공묘(萬國公墓)에 안장되었다. 이곳에 함께 묻혀 있던 임정(臨政) 요인들은 1993년에 고국으로 돌아와 현충원에 안장되었으나 아직도 그는 상해 외국인묘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그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된 것은 1995년의 일이다. 1926년 6월 7일 새벽 2시, 그가 동지들의 이름과 독립의 순절을 지키기 위해 산화한 지 70년이 지난 뒤이다. ▲

해설 | 한국고전번역원 이기찬 고전문헌번역실장

한국고전번역원

우리 선조들의 정신문화를 담고 있는 한문 고전의 수집·정리·번역을 통해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7년 11월 교육부 산하 학술연구기관으로 출범한 기관



이 신기한 글자는 옛 선조분들께서 지혜로써 개발하신 글자로서 지금도 행운의 글자로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고하니 가운데 입구자를 중심으로해서 보면 오유지족 吾唯知足. 나는 오직 만족할 줄 알아 행복합니다. 라는 뜻의 사자성어가 됩니다. 늘 현실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행복한 나날을 발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글자라 추측이 됩니다. 오유지족 吾唯知足이란, 현실에 만족하며 번민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한다는 석가모니부처님의 <유교경 遺教經>이라는 경전의 법문중에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추억삼을 만한 즐거운 때를 만나는가 하면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괴로운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즐거울 때의 경우라면 항상 그와 같기를 바라며 즐기다가도 괴로운 처지가 되면 짜증나고 답답해하며 심지어는 절망에 빠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을 확률로 따진다면 누구나 즐거운 때보다는 답답하고 괴로운 쪽이 더 무게를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겨운 반복을 계속하는 삶속에서 진정 행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잠깐의 즐거움에 대한 미련과 끝없는 욕심을 가짐으로써 항상 불만과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정말 행복의 삶으로 바꾸기 위해선 허욕적인 욕망이 아닌 진심어린 만족일 것입니다.

우리는 만족을 함으로써 즐거움을 배로하며 괴로울 때는 안도감과 또다른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도 합니다. 아무리 괴로운 처지라도 바꿔 보면 의외로 즐거운 상황을 찾을 수도 있는 거죠.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과거와는 다른 발전된 나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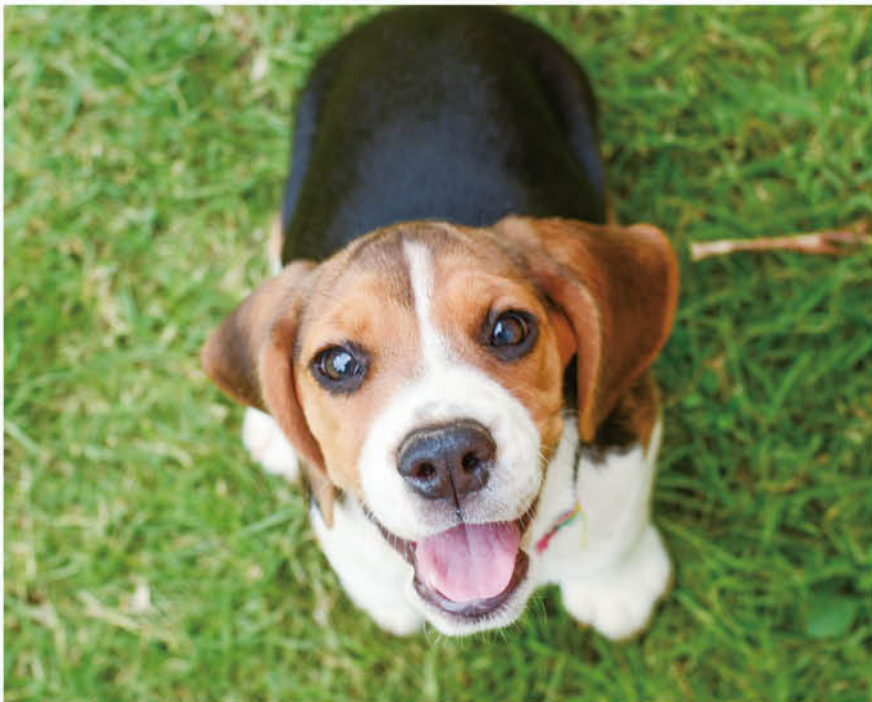
현재와 현실은 다릅니다.

현재가 답답하고 괴로워도 깨닫고 보면 행복한 현실인 것을... ♪

중성화 수술

권도형

닥터펫동물의료센터 원장
수의내과학 석사
수의사



동물병원에 내원하시는 보호자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저는 '중성화 수술'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집 강아지는, 고양이는 언제 중성화 수술을 해야 하는지?

중성화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수술인지? 이번 호에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중성화 수술'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중성화'란 반려견, 반려묘의 생식기능을 제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수컷의 경우 고환을 제거하게 되구요, 암컷의 경우 난소와 자궁을 제거함으로써 생식능력을 완벽히 없애는 것이죠.

이러한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상당히 다양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수컷 강아지, 수컷고양이의 중성화수술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중성화 수술의 장점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수컷강아지나 고양이의 경우 난폭함(공격성)이 조금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고환종양, 전립선비대증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교배행위(마운팅)도 감소하고, 수컷특유의 영역표시도 줄어들거나 아예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 중성화 수술의 단점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너무 어린 나이에 수술을 하게 된다면 통증반응에 대해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한 비만이 유발될 수 있죠. 수컷 고양이의 경우 어린나이에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된다면 추후에 '하부요로계질환'의 발생확률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중성화 수술이 과연 꼭 필요한 수술인가? 라는 질문에는 그런 상황도 있고 아닌 상황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환이 정상적으로 고환집에 위치하지 않은 '잠복고환'이라는 질병 상태에서는 반드시 수술을 해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만, 그 외의 상황에서는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중성화 수술의 시기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강아지를 키우고 이제 겨우 첫 번째, 두 번째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성화 수술을 언제 해야 하는지 여쭙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너무 급하게 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한 살 이전에 해야 한다' 라는 법칙도 없고, 네 살, 다섯 살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집 강아지가 다리를 들고 소변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중성화수술을 해야 해요'

'우리집 강아지가 자꾸 인형에 올라타서 교배행위를 해요'

라는 이유로 중성화 수술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중성화 수술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중성화 수술을 한 이후에도 다리를 들고 소변을 보는 아이들이 종종 있고, 그 행동은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에 굳이 수술적으로 억제를 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수컷강아지의 '교배행위'는 성적인 행동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

니다. 스트레스의 해소, 만족감의 표현, 등으로 훨씬 더 자주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진짜 교배를 위한 행동은 '발정기의 암컷강아지'에 올라탈 때 뿐이라는 점을 알려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반려견, 반려묘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그와 함께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견, 유기묘의 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생식능력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암컷, 수컷 강아지를 같이 키우는 가정에서는 무분별한 번식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성화수술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물들도 감정을 느끼고, 고통을 느낀다는 점을 알려주시고, 사람과는 다른 동물이라는 점도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고양이가 '나와 함께 살기위해서는 꼭 지켜야 할 행동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수술을 강행하신다면 저도 말릴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성화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수술은 아니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다른 집은 강아지, 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했다던데, 옆집은 강아지 중성화 수술을 했다던데 우리집 강아지도 해야지. 라고 따라하지 마시고, 꼭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 고양이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한 번 더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



회사·불공·실천 삼위일체가 되어야

이타심
관성사 교도



어머니를 따라 부처님과 첫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면 자성학교를 가는 날이라며 들뜬 마음을 안고 자리에서 일어난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공을 들여야 아들을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 진관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종교 생활에 더욱 더 정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파일, 백중, 동짓날 등 온갖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하며 아들을 낳기 위해 정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둘째로 딸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사랑스러운 딸이지만, 그때만 하여도 시대적으로 아들 하나쯤은 있어야지 하던 분위기가 만연하던 시절이라 딸아이가 태어나니 스스로에게 조금은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서대문 아현동의 서원당을 찾아가 복지화 전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수님께선 저의 서원을 들으시곤 제게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원하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회사·불공·실천 이 세가지의 삼위일체가 맞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전수님의 말씀을 믿고 오직 정진에 많은 것을 쏟아 부었고 그 결과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큰 딸아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아이 셋이 모두 대학에 낙방하였을 때입니다. 전수님께서는 오직 아이들을 위한 불공을 할 각오가 되었는지 제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말하길 “엄마는 정진으로 바위를 뚫을 자신도 있다. 그러니 너희도 진심을 다 하여 열심히 공부하길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꼬박 백 일을 하루 세 시간씩 쉬지 않고 정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다행히도 그 해에 셋 다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 때부터 옴마니반메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옴마니반메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생활 습관이 되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아이가 미대 입시생때의 일입니다. 실기 시험이 아주 중요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처님의 가피를 많이 받았습니다. 실기 시험을 보는 학생은 아주 작은 것에도 예민합니다. 아이는 특히나 징크스마냥 뒷자리에 앉아야 마음 편하게 실기시험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보통 현장에서 제비뽑기로 결정되는 것이라 본인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기 시험을 보던 날 아이는 현장 제비뽑기에서 가장 앞자리를 뽑았습니다. 아이는 순간 너무도 당황하여 ‘아 시험 망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다가, ‘그래도 아직 모른다. 부처님 도와주세요.’하며 작게 마음속으로 서원을 했습니다.

자리 추첨이 끝날 무렵,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생 중 한 명이 제비뽑기에서 두 장을 뽑아 현재의 결과를 무효처리를 하고 다시 제비뽑기를 하는 겁니다. 딸아이는 너무도 다행이라 생각하며 다시 자리 추첨을 하였고 원하는 자리에 앉아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시 준비를 하며 미술학원에 열심히 다녔는데, 실기시험 전 날 딸아이의 선생님께서 밤늦게 아이를 학원으로 불러 실기 연습을 시켰습니다. 아이는 너무도 피곤하였는데 어쩐지 가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학원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학원 선생님께서는 ‘탈’이라는 주제로 연습을 하라고 하였고, 아이는 충분히 연습을 하고 귀가하였습니다. 다음날 실기 시험장에서 받은 주제는 다름 아닌 ‘탈’이었습니다. 당연히 아이는 학교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총지화 전수님께서 제게 늘 하셨던 말씀이 가족을 제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제도하지 못 한다면 도대체 누굴 제도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게 현재는 삼대가 함께 관성사에 나가고 있습니다. 제 남편과, 자식 부부, 그리고 손녀들까지 말입니다. 온 가족을 제도하고 나니 모든 것이 다 편하고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온 가족에게 내리니 너무도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도 정성스레 기도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늘 노력하는 자세를 가집니다. 어떤 상황이든 부처님과 함께한다고 생각하면 늘 행복하고 편안한 마음이 듭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부처님과 함께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





아직 겨울이라기엔 이른 늦가을이었었다. 옷은 비록 남루했지만 용모가 예사롭지 않은 한 고구려인이 신라 일선군(지금의 경북 선산)에 있는 부자 모례장자(毛禮長子) 집을 찾아왔다.

모례장자는 행색과는 달리 용모가 준수한 낯선 손님을 경계를 하며 맞이했다. 모례장자의 점잖고 융숭한 대접에 고구려인은 자신을 소개했다.

“나는 묵호자라는 고구려 승려입니다. 인연 있는 땅이라 찾아왔으니 나를 이곳에 묵을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십시오.”

뜬금없이 인연을 운운하는 손님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그는 전생부터의 인연이었는지 아무래도 낯선 객이 신비스럽고 큰 범도를 알고 있는 대인인 듯하여 굴실을 지어 편히 거처케 했다. 이 무렵 조정에서는 중국에서 의복과 함께 보내온 가느다란 막대형태의 물건의 이름과 쓰는 법을 몰라 전국에 수소문하고 있었는데 이 소문을 들은 묵호자는 모례장자를 불러 그것이 백단향(白檀香)이나 자단향(紫檀香) 같은 향목(香木)이라는 것으로 잘게 쪼개 불을 사르면 그윽한 향기가 풍기는 것으로, 만일 그것을 태우면서 정성이 신성한 곳까지 이르도록 간곡히 축원하면 무슨 소원이든지 영험이 있을 것임을 일러주었다. 이에 모례장자는 조정에 들어 향목과 묵호자에 대해 소상히 알렸고, 중국에 화신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얼마 지난 뒤 조정에서 묵호자를 청하는 사신을 보내왔다. 공주가 위독하여 백방으로 약을 쓰고 있으나 차도가 없어 묵호자를 청하

게 된 것이다.

묵호자는 때가 되었다는 듯이 흔쾌히 허락 후 공주를 찾아가 향을 피우고 불공을 드렸다. 그윽한 향기가 방안에 퍼져 가득하고 묵호자의 염불이 조용히 흘러나오기를 며칠째 공주는 병상에서 일어났다. 왕은 기뻐하며 묵호자에게 소원을 물었다.

“빈승에게는 아무것도 구하는 일이 없습니다. 다만 천경림天鏡林에 절을 세워서 불교를 널리 펴고 국가의 복을 비는 것을 바랄 뿐입니다.”

왕은 즉시 이를 허락하였고 불사가 시작되고 홍륜사興輪寺가 창건한 뒤 불법을 강연하였다.

천경림의 절터는 고구려에 계신 묵호자의 어머니 고도령이 일러준 일곱 절터 중 하나이다. 묵호자의 어머니 고도령은 중국 위나라에서 온 사신 아굴마와 연정이 깊어 묵호자를 낳게 되었다.

그 후 묵호자가 다섯 살이 되자 출가를 시켰고 16세가 되던 해 묵호자를 찾아와 모든 사연을 이야기해주었다. 묵호자는 중국에 가서 아버지 아굴마를 만난 후 현장화상玄奘和尚의 문하에 들어가 3년간 공부한 후 19세가 되었을 때 고구려로 돌아왔다. 어머니 고도령은 아들과의 만남을 뒤로 한 채 “신라땅에는 천경림을 비롯하여 7곳의 큰 가람터가 있으니 이는 모두 불전의 인연지로서 앞으로 불법이 깊이 전해질 곳이니 그곳에 가서 대교를 전하면 웅당 네가 그 땅의 개조開祖가 될 것이다.”라는 당부로 아들을 신라땅으로 보낸 것이었다.

묵호자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수행의 목표로 삼아 불명아도阿道란 이름을 쓰며 신라땅에서 전력으로 불법을 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세상을 뜨고 새 임금이 권좌에 앉자 불법에 불만에 품은 무리들이 아도를 몰아내려했다. 결국 아도는 제자들과 함께 다시 모례장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경률經律을 강독하고 설법을 했다. 많은 신봉자가 따라는 가운데 소와 양을 천 마리씩 길렀다. 그렇게 5년의 세월이 지났을 쯤, 아도는 행선지도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을 만나고 싶으면 칙순을 따라 오라는 말만 남기고 훌쩍 그곳을 떠났다.

그 해 겨울, 기이하게도 모례장자집 문턱에 칙순이 들어왔고 그 줄기를 따라 가니 아도가 있었으니 그곳이 바로 신라불교의 초전지인 지금의 도리사桃李寺터였다.

모례장자 앞에 선 아도는 이곳에 절을 지을 것이니 곡식 두말을 시주하라며 망태기 하나를 장자 앞에 내 놓았다. 장자는 기꺼이 승낙하고는 곡식 두말을 망태기에 부었으나 두말은커녕 두 섬을 부어도 차지 않았다. 결국 장자는 전 재산을 다 시주하여 절을 세우게 되었다.

절이 세워진 태조산 밑에 때 아닌 복사꽃이 만개하여 눈이 부셨으니 아도화상은 이에 절 이름을 도리사桃李寺라 칭했고 마을 이름을 도개桃開마을이라 했다.

지금도 도리사 인근 마을을 양과 소를 천 마리 길렀던 곳이라 해서 ‘천우골’, ‘양우골’이라 부른다. 모례장자의 집터는 ‘모례장자터’ 그리고 우물은 ‘모례장자샘’이라 하는데 모례장자샘에서는 지금도 맑은 물이 샘솟고 있다. 마을에서는 긴 화강암을 우물정[#]자모양으로 엮갈리게 짜 맞추어 놓았다.

인연 있어 만나게 되는 만남은 필히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이유 없는 만남은 없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인연에 이끌려 당시엔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지만 그 순간들이 지나고 나면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신통스런 체득을 하기도 합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음이지요. 모든 인연이 소중하지만 불법으로 이어진 인연은 더 귀한 인연입니다. 쉽게 만날 수도 없거니와 그 과정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불현 듯 불법에 대한 신념이 생겼다면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말씀만으로 낯선 땅에서 전법을 한 아도화상이나 까닭모를 이끌림에 아도화상을 물심양면으로 도운 모례장자의 이야기에 주춤거렸던 수행의 발걸음을 다시 재촉해 봅니다. ♫

거짓을 거짓인 줄 알고
진실을 진실이라 바로 아는 사람은
이러한 올바른 견해로 인해
마침내 진실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 법구경 -



기도

- 나태주

내가 외로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추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추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나 내가 비천한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비천한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때때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해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등을 뒹고 가는 싸늘한 바람에 심신이 움츠려진다.

조금은 때 이른 추위에 몸이 떨리는 것인가, 차가워진 바람에 마음이
출렁거리는 것인가…….

기도하기 위해 합장한 손이 스르르 풀어지며 고장 난 나침반처럼
이리저리 정신을 홀뜨린 채 한동안 우두커니 앉아 있다.

어쩌면 습관이 되어버렸을 기도는 시작도 끝도 모를 망상에 젖어 이
미 멀리로 달아나고 있나 보다.

기도의 간절함은 늘 내게로만 향해 있었다는 부끄러운 독백이 흘러
나온다.

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누군가 필요했었고, 다른 이의 외로움과
가난과 추위를 돌아본다는 건 어쩌면 가식이 아니었는지.

이쯤에서는 내 기도가 깊어지길 간절히 희망한다.

번민과 허상으로 가득하던 기도가 이제는 실답게 더 겸허한 마음으
로, 더 낮은 곳으로 향하여 단 한 순간만이라도 자비와 지혜로움 충만
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

내가 서 있는 이 곳이 어디이든, 가고자 하는 방향이 흔들림 없이
가고 있는지

보고, 꿈꾸는 장면들이 그들과 내가 '우리'라는 이름으로 더불어 기쁘
고 행복할 수 있는 일인지

창틈 비집고 새어드는 찬바람에 정신을 가다듬고 느슨해진 합장을
되잡아 본다. ♫

차 도구의 중요성 2

김정애
다도 전문가
정각사 교도

다기의 종류

- ① **차관** : 물을 끓이는 용기, 간편하게 대신해서 전기포트를 사용해도 됩니다.
- ② **퇴수기** : 예열했던 물이나 세척(개차)시 차를 씻어낸 물, 남은 차를 버리는 그릇, 퇴수기도 차호와 같이 일반적인 다기세트 구성에 잘 포함되지 않는 다기지만 전통다도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입니다.
- ③ **차호** : 차를 담아 놓는 통, 우리나라에서는 항아리를 축소한 형태가 많습니다.
- ④ **차척(차시)** : 차호에 담긴 차를 덜 때 사용하는 도구이며 대나무 제품이 좋습니다. 손가락 모양은 차시라고 합니다.
- ⑤ **차탁** : 찻잔 받침, 나무제품이 좋으며 다도하면서 잔과 부딪히는 소리가 귀에 거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⑥ **찻잔** : 차를 따라 마실 때 사용하는 그릇입니다.
- ⑦ **숙우** : 물을 식히는 그릇(잎차 용에 꼭 필요)이고 적당히 식힌 물을 다관에 부을 때 사용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관에 차를 걸러 차를 마실 때나 차를 따를 때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⑧ **다관** : 차를 우리는 주전자, 잎차와 더운 물을 함께 넣어 차를 우려내는 용기입니다. 다관의 크기와 열과 향을 잘 보호 할 수 있어야 하고 도자기 제품이 좋으며 구입할 때 뚜껑이 정교하게 맞는 것이 좋습니다. 청결이 중요하며 다도를 즐긴 후 데운 물로 행구어 두고 최근에는 그물망이 내장되어있는 차 주전자를 다관 대신 편리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⑨ **다상** : 다관, 숙우, 잔, 차호 등 다기를 올려두는 판입니다.

⑩ **다포** : 찻상위에 까는 보입니다.

⑪ **차상보** : 찻상위의 다기를 덮는 보입니다.

⑫ **다건** : 차수건(부드러운 마포), 차를 우려낼 때나 정리할 때 쓰는 행주 같은 것으로 다도 후 말려두거나 자주 삶아 살균소독을 해야 합니다.

다기를 고를 때 다관은 흐르는 물줄기가 예상하는 곳에 잘 떨어지는지의 여부와 물을 따를 때 흘러내리지 않고 깨끗하게 끓기는지도 살펴 봐야 합니다. 도자기 재질의 다관은 녹차용과 발효차용을 구분하여 사용하는데 그것은 백자다관에 짙은 발효차(보이차)를 넣어 우려 보면 다관의 실금을 따라 짙은색을 띄며 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관에 녹차를 우려 보면 발효차의 향을 머금고 있어 고유의 차맛을 느끼는데 방해가 됩니다. 녹차는 짙은 맛이 적게 우러나오도록 보온력이 약한 백자나 청자 재질 다관을 사용하며 우롱차나 홍차 등 발효차는 보온력

이 강한 사기 재질의 다관을 사용합니다.

다관은 일반적인 주전자 모양을 한 것도 있지만 손잡이가 옆이나 뒤에 달린 것도 있습니다. 다기 중에서도 다관을 중요시 하는 것은 예부터 다관의 손잡이는 남성, 다관 뚜껑의 꼭지는 어머니, 차를 따르는 입구 부분은 아들, 밑받침은 여성을 의미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가족 구성원 중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 가족 관계에 문제가 생기듯이 다관 역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차의 맛과 향을 감소시킨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기의 관리

차 맛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다기를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기를 종종 삶아 소독해 주면 잡내와 군내가 배지 않게 됩니다. 다만 세척할 때 합성세제를 사용하게 되면 찻잔에 세제 냄새가 스며들어 냄새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아 차를 제대로 즐길 수가 없기에 물로만 세척하고 다포나 수건으로 물기만 제거하시면 됩니다.

새로 구입한 다기는 유통과정에서 이물질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물과 함께 팔팔 끓여 주면 됩니다. 또한 다기를 오래 사용하시면, 자연적으로 차향이나 찻물이 다기에 배게 됩니다. 차를 마시다 보면 다기에 찻물이 드는데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지만 차를 자주 마셔온 사람들은 이 찻물의 흔적을 차를 오래 마셨다는 하나의 징표로 여기기

도 합니다. 다기에 차심이 배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굵은 소금으로 세척을 하시면 다심이 배는 것을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차 한 잔이 마음 한 잔이라고 말하는 다인이 있듯이 차 한 잔을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갖고자 한다면 생활에서의 소소한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 어느날,
정겨운 사람과 차 한 잔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



뮤지컬 '시카고'를 보고와서

여순애
자석사 교도



지금껏 한 번도 뮤지컬을 관람한 경험이 없어 '뮤지컬은 어떤 무대로 만들어지며 노래로써 꾸며간다는 데 어떤 묘미가 있는걸까?'하는 생각으로 뮤지컬 '시카고'를 관람하는 게 흥미로웠다.

뮤지컬을 두 배로 즐기는 방법은 극 속에 나오는 노래를 미리 귀에 익혀두는 것이란다.

놀라운 건 시카고만 1년 내내 공연하는 극장도 있다는데 과연 어떤 공연인지 한 층 기대된다.

난 가창력있는 최정원, 남경주 주연의 무대를 선택했다. 자녀를 따라 관람을 온 나이드신 분들도 눈에 띄었는데 보기 좋은 모습이었다. 검은 무대와 검은 속옷의 의상 그리고 무대 중앙의 오케스트라와 재즈음악이 농염한 효과를 자아내는 시카고.

시카고의 배경은 1926년 당시 미국 시카고 쿡 카운티 교도소 여죄수들이 살인공판의 결과가 얼론에 따라 움직이는 일이 생긴다.

이를 '시카고 트리뷴'지의 가자였던 '모린 탈라스 왓킨스'가 연극을 쓰는데 이것이 뮤지컬 '시카고'의 모티브가 된다.

줄거리는, 배우였던 벨마 켈리가 남편과 여동생이 바람을 피자 둘을 총으로 살해한다. 감옥에서 간수 마미모튼과 변호사 빌리 플립의 도움으로 언론의 관심을 끈다. 그녀는 유명 죄수가 되고 무죄 판결을 받으려 힘쓴다.

하지만 언론의 관심은 곧 록시 하트라는 다른 여인에게 옮겨진다. 록시 하트는 무대에 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사귀 내연남을 뜻대로 되지 않자 총으로 살해한다. 그 죄를 남편이 대신해 받으려다 발각되어 감옥에 간다. 그녀는 남편의 순정을 이용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내며 행복해 한다. 결국 록시는 언론에 힘입어 정당방위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얻어낸다. 그러나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언론의 관심은 곧 시들어 버린다. 그녀보다 더 자극적인 스토리를 가진 또 다른 죄수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뮤지컬 시카고는 오로지 자신의 명성과 이윤만을 추구하는 탐욕스러운 변호사와 언론을 조작하는 기자들 그리고 알면서도 놀아나는 사법부를 풍자한 작품이다. 이 뮤지컬이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명작의 반열에 놓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풍자가 이 시대에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

불탑의 나라 미얀마를 가다(1)

우연
자석사 교도



태국에서 6일을 보내고 미얀마로 향했다. 달리는 차창 밖은 철쭉 같이 어둡고 비는 계속 내렸다. 버스 안은 텅 비었는데, 통제 되지 않는 냉방의 찬 기운이 온몸으로 파고들었다. 안내양이 건네주는 담요 한 장으로 몸을 감싸고 의자 깊숙이 몸을 숨기며 잠을 청했지만 잠은 저만치 달아나고 정신은 말뚱하기만 했다. 60이 넘는 나이에 23일간의 해외 배낭여행을, 친구의 말 한 마디에 무턱대고 따라 나선 것이 슬슬 후회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15일에 걸쳐 미얀마 전역을, 여행지로 잘 알려진 파안, 짜익티요, 바고, 양곤, 만달레이, 핀우린, 나웅펜, 바간, 낭췌(인레)를 거쳐 다시 양곤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잡았었다.

버스는 방콕을 출발한지 8시간을 넘게 달려 다음날 태국의 서북부에 위치한 국경 도시 메솃에 도착 했다. 시간은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도시는 어둠속에 잠들어 있었다. 메솃은 미얀마의 미야와디와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국경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이다. 미얀마로부터 국경을 넘어 오가는 사람이 하루에 평균 5천명이 넘을 정도라고 한다.

다리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사람들은 한 손에 우산을 바쳐 들고 양어깨에 커다란 배낭을 멘 이방인이 이상하다는 듯 힐끗 힐끗 쳐다보고 지나갔다. 그렇게 우리는 미얀마로 넘어 가는 유일한 다리, 우정의 다리를 건넜다.

입국수속을 밟기 위해 출입국사무소에 들어갔다. 좁은 사무실에는 낡은 책상과 의자들이 제멋대로 놓여 있었다. 2명의 근무자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 하나 하나를 컴퓨터가 아닌 수기로 처리하고 있었다. 벽 정면에 놓여 있는 TV에서는 새벽 예불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스님의 독경 소리만이 사무실을 깨우고 있었다. 누구라도 미얀마가 불교 국가임을 한 눈에 알 수 있겠다.

미야와디는 지금도 미얀마 정부군과 치열하게 내전을 벌리고 있는

반군의 근거지이며 마약 왕으로 유명했던 쿤사의 거점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도시는 한적한 시골 같으면서도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도는 듯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1차 행선지 파안을 향했다. 파안은 동굴 투어로 유명한 곳이다. 파안은 미얀마의 130여개 소수 민족 중 두 번째로 큰 까렌족의 본거지이다. 비는 계속 내리고 도로 사정은 열악하여 마치 우리나라 60년대를 떠올리게 했다. 도로 양쪽으로 펼쳐진 광활한 농토는 이미 비로 잠겨 거대한 호수로 변해 있었다.

미얀마의 1년은 건기(10월~4월)와 우기(5월~10월)로 나뉘는데 지금은 우기인 것이다. 건기에는 비가 거의 오지를 않다가 우기에 1년에 내릴 비가 집중적으로 내린다고 했다.

얼마나 달렸을까. 앞서 가던 차량이 가다말다 하더니 결국 차가 멈추고 말았다. 진입해서는 안 되는 다리 위를 대형차가 가로 막고 있었는데, 어제 저녁부터 발생한 사고가 지금까지 수습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평소에 익숙한 일인 듯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답답하리만큼 태평스러워 보였다.

결국 예상 시간 보다 한참 지난 오후에 파안의 숙소에 도착 했다. 비는 다시 무섭게 내렸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표현했던 억수 같은 비, 장대 같은 비, 물 폭탄....이런 식의 표현 갖고는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겠다. 계속 이렇게 비가 내리면 도시 전체가 잠기는 것은 아닌지, 성경에 노아의 홍수가 이러했을까 하는 두려움마저 들었다.



다음날 아침 툽툽이를 타고 동굴 투어에 나섰다. 툽툽이는 오토바이나 소형트럭 짐칸을 개조하여 사람이 탈 수 있도록 만든 이동 차량이다. 도로는 어제의 비로 곳곳이 침수가 되고 완전히 물바다로 변해 있었다. 등교하는 학생들과 아침 출근길에 나선 오토바이, 툽툽이, 트럭 버스 등 각종 차량들이 서로 뒤엉켜 경적을 울리면서 지나가는 모습이 마치 피난 행렬을 보는 듯 했다. 그럼에도 사람들의 표정에는 불안 해하거나 걱정에 찬 모습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오히려 손을 흔드는 우리를 향해 밝은 웃음과 손짓으로 답례를 했다.

동굴에 도착했다. 아태판 동굴은 7세기경에 조성된 석회암 동굴로 파고다와 크고 작은 불상이 동굴 구석구석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곳에서 치열한 구도의 길을 갔을 수행자들을 생각하니 숙연함과 경외감





마저 들었다.

지근거리의 코쿤 동굴은 7세기 몬 왕조 이후 스투코 타일(대리석과 점토분을 섞어 만든 것)로 만들었다는 붉은색의 손가락만한 불상이 동굴 입구 벽면과 천장에 가득 조각되어 있었다. 석굴 안쪽으로 더 들어가니 키가 10미터는 뽕직한 두 와불 상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불상들이 빼곡하게 차 있었다. 부처님을 향한 불심의 표현이 지역과 국가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부처님이 전하고자 한 깨달음의 길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숙소에서 점심을 먹고 다음 행선지 짜익티요로 가기 위해 길을 나섰다. 짜익티요는 황금바위로 유명한 곳이다. 도로변의 일시 정차장에서 버스를 기다렸다. 통행 차량의 대부분은 중고차량이며 1980년대 일본

에서 무상으로 원조 받은 것이 많다고 한다. 버스가 도착했다. 놀랍게도 버스 외벽에 한글로 새천년 미소라고 선명하게 적힌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버스가 아닌가. 우리나라의 중고 버스가 이곳에서 버젓이 시외 공용버스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오랜 친구를 만난 듯 반가웠고 은근한 자부심에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그때 버스에서 한 남자가 급히 내리더니 사람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버스 차장이었다. 우리나라 1970년대처럼 차장은 승객을 타고 내리게 하고 요금을 받는 일을 하고 있었다. 버스에 오르자 차 안은 TV에서 흘러나오는 불경 소리로 가득했다. 문득 사찰 순례를 가기 위해 관광버스를 탔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버스는 계속 달렸고 어느 지점에 차가 정차하자 군인이 차에 올라 검문을 하기도 하였다.

학교 앞을 지나 갈 때는 통 치마 같은 녹색의 론지를 입은 남녀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교문을 무리지어 빠져 나오는 것이 보였다. 지난 날 나의 학창 시절이 아련하게 떠올랐다.

순간, 시간여행에 온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 들었다. 같은 시간에 존재하는 과거와 현재의 공간... 차창 밖에서 까마득히 잊었던 시간들의 입자로 가득한 습한 바람이 불어 왔다. 나는 그 바람에 얼굴을 바짝 들이댔다.

다음날은 짜익티요산에 올라 황금바위 사원을 돌아보는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



고통은 나쁜 것이라는 착각

법상 스님

고통, 역경, 슬픔, 불안, 불편, 아픔, 병 등,
이런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있다.

이런 부정적인 것들은
삶을 방해하고,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라는
막연한 판단들이 그것이다.
장자의 혼돈을 애써 들먹이지 않더라도,
혼돈이란 오히려 진리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그 무엇일 수 있다.
고통스럽다고 해서,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문제, 실수, 불행이라고 진단하지는 말라.

진리가 반드시
'잘 풀리는 느낌',
'기분 좋은 느낌',
'성공적인 느낌',
'정상적인 느낌'일 필요는 없다.



때때로 진리는
그 반대의 느낌을 통해 오기도 한다.

중요한 점은
지금 내 기분, 느낌, 판단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온전히 존재하고 있는가다.

판단을 빼고,
해석을 빼고,
정상적이거나 비정상적이라는 판단,
불행하거나 행복하다는 분별을 빼고,
그저 거기에 있어 보라.
때때로 비정상적이거나,
불행하게 느껴지거나,
기분이 다운되거나,
잘 안 풀리는 방식의 경험을 통해 오는 진리를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꼭 필요할 때가 있다.

그 때가 언제일까?
현재가 시킬 때!
내 삶이 그 위에 서 있을 때!

그 때는 다만 그것을
활짝 열고 경험해 주라.

고통이 경험되도록,
아픔이 표현되도록,
존재가 무너져 내리고
부서지도록
허용해 주라.
그것이 지금 나에게 왔다면,
그것은 곧 경험됨으로써
진리로 드러나기 위해 온 것이다.

그 진리를 마음껏 살아주라.
죽지 않으니.

정상적이어야 한다거나,
성공적이어야 한다거나,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

내 스스로 만들어 낸
하나의 생각, 분별일 수도 있지 않은가?

새옹지마란 말처럼 말이다.

비바람치는 순간,
그 비바람을 온 몸으로 맞아 보라.

그것이 당신을 풀려나게 한다.
진실과 마주하게 한다. ♣



생각하는 것은 아는 것과 같지 않다

범일
벽룡사 주교



노자는 매일 저녁 제자 한 명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 그런데 엄격한 규칙 하나가 있었다. 산책하는 동안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어느 날 한 신입생이 영광스럽게도 노자를 따라나설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그날 노자와 제자는 해가 지평선으로 지고 있을 때 산모퉁이에 다다랐다. 마치 천상의 축제를 위해 펼쳐지는 깃발처럼 짙은 진홍빛, 황금빛, 노란빛들로 서쪽 하늘이 찬란하게 물들고 있었다.

그 자연의 아름다운 광경 앞에서 넋을 잃은 신입 제자는 그만 자신도 모르게 말을 하고 말았다. 너무 흥분해서 소리 친 것이다.

“와. 정말 아름답다!”



제자는 그 엄격한 침묵의 규칙을 어긴 것이었다. 스승은 조용히 돌아서서 사원으로 돌아갔다. 사원으로 돌아온 노자는 다시는 그 신입 제자가 산책에 따라와서는 안 된다고 모든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규칙을 어긴 벌을 받은 것이다.

그 신입 제자의 도반들이 그를 도와주려고 애썼다. ‘아름다운 석양을 보고 그 한마디 한 것이 도대체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하고 불평이었다.

이때 노자가 말하였다.
“그가 ‘와. 정말 아름답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더 이상 석양을 보고 있지 않았네. 그는 아름답다는 생각에 정신을 팔고 있었지.”

어떤 일을 묘사하는 말을 인식하는 것과
그 일 자체를 경험하는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생각하는 것은 아는 것과 같지 않다.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

사실단

四 悉 壇

김재동 법장원 연구원

四 讖 - 사 悉 다 - 실 壇 단 - 단

불교의 정신적 원형은 부처님의 정각(正覺)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그러한 정각의 내용은 심오하여 알기 어렵다. 부처님 또한 그러한 깨달음을 중생에게 이해시키기 어려움을 알고 주저하였지만, 대비심을 일으켜 전도를 시작한다.

가장 대표적인 대승론이라 할 수 있는 『대지도론』은 그러한 전도의 방법, 즉 교수법인 실단(悉壇)에 대해 설명한다.

첫째, 세속적 관점의 세계실단은 현상을 원인과 조건의 화합에서 나온다고 본다. 수레가 손잡이, 차축, 바퀴살, 바퀴의 테두리 등의 결합으로 있을 뿐, 이러한 구성요소들과 떨어져 실체적인 “수레”는 없다는 유사한 비유로 설명한다. 같은 방법으로, 사람은 오온의 결합으로 있지, 이러한 구성요소들과 떨어져 실체적인 자아는 없다. 부처가 “나는 천안(天眼)으로 존재가 자신들의 선한 행위나 악한 행위의 과보에 따라 여기서 죽고 저기서 태어

나는 것을 본다. 선한 행위를 한 사람들은 천신이나 사람으로 태어나고 악한 행위를 한 사람들은 세 개의 악도(지옥, 아귀, 축생)에 간다.”고 할 때, 이는 세계의 관점이다.

둘째, 개별적 관점의 위인실단은 개인의 정신적 상태나 능력에 따른 부처의 교설을 가리킨다. 이는 거칠게 말하면 속제(俗諦)를 사회적 관습이나 일상 언어의 영역, 그리고 중생을 돕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부처가 설교할 때, 어떤 사람은 이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이는 개인들 각자의 이해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셋째, 치료적 관점, 즉 대치실단은 부처의 가르침을 인류를 괴롭히는 병폐에 대한 치료법으로 설명한다. 이는 대략적으로 속제(俗諦)를 치료해야 할 번뇌, 또는 “질병”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대지도론은 이를 어떤 사람에게든 필요 없지만 어떤 사람에게든 치료제인 약초나 약이라고 설명한다. 불법은 기능적인 면에서, 다양한 마음의 병(心病, cetovy dhu)에 대해 다양한 치료법을 처방하는 것과 유사하다.

넷째, 제일의적 관점은 제일의실단은 분별되지 않는(vibhakta: 不可散, 부서지지 않는-bhinnā: 不可破 진실법(眞實法, bh tadharma)을 가리킨다. 제일의실단은 그 내용을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부정 용어로 기술한다. ↓



생전예수재

生前預修齋

生 날-생 前 앞-전 預 말길-예
修 닦을-수 齋 재계할-재

다음 생의 복업福業 미리 닦으려고, 금생今生에 49재 지내는 전통의식

예수재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사찰에서 예수님 제사를 지내주는 건가?’라며 의아해 했다는 불자도 있다.

아무리 너와 나를 구분하지 않는 불교라지만 과연 그럴까. 답은 아니다. 생전예수재라는 용어를 잘못 아는 데서 생기는 오해다. 대체 불교와 예수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생전예수재生前預修齋는 예수시왕생칠재豫修十王生七齋를 줄인 말이다. 풀어쓰면 살아있을 때 다음 생의복을 미리 닦는 의식이란 뜻이다. 여기서 ‘예수’는 ‘미리 닦는다’는 말이다. 속설에 따르면 자신의 49재를 살아있을 때 미리 지내는 것이라 한다.

불가에서는 윤달을 즈음해 예수재를 지낸다. 이는 윤달에 어떤 하기 어려운 일을 하면 탈이 없다는 오랜 믿음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불자들은 예수재를 지내는 동안 자



신의 죄를 참회하고 지계와 보시를 실천함으로써 복덕을 쌓는다. 한편으로는 부지런히 경전을 독송해 불법의 진리를 깨닫기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흔히들 예수재를 자신의 극락왕생을 비는 ‘기복신앙’이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예수재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재의 진정한 의미는 실천에서 찾아볼 수 있다.

49재나 천도재가 죽은 뒤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것과 달리 예수재는 스스로 기도를 하고, 공덕을 쌓아 사후를 대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는 개인의 수행과 공부가 중요함을 강조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구현한 의식이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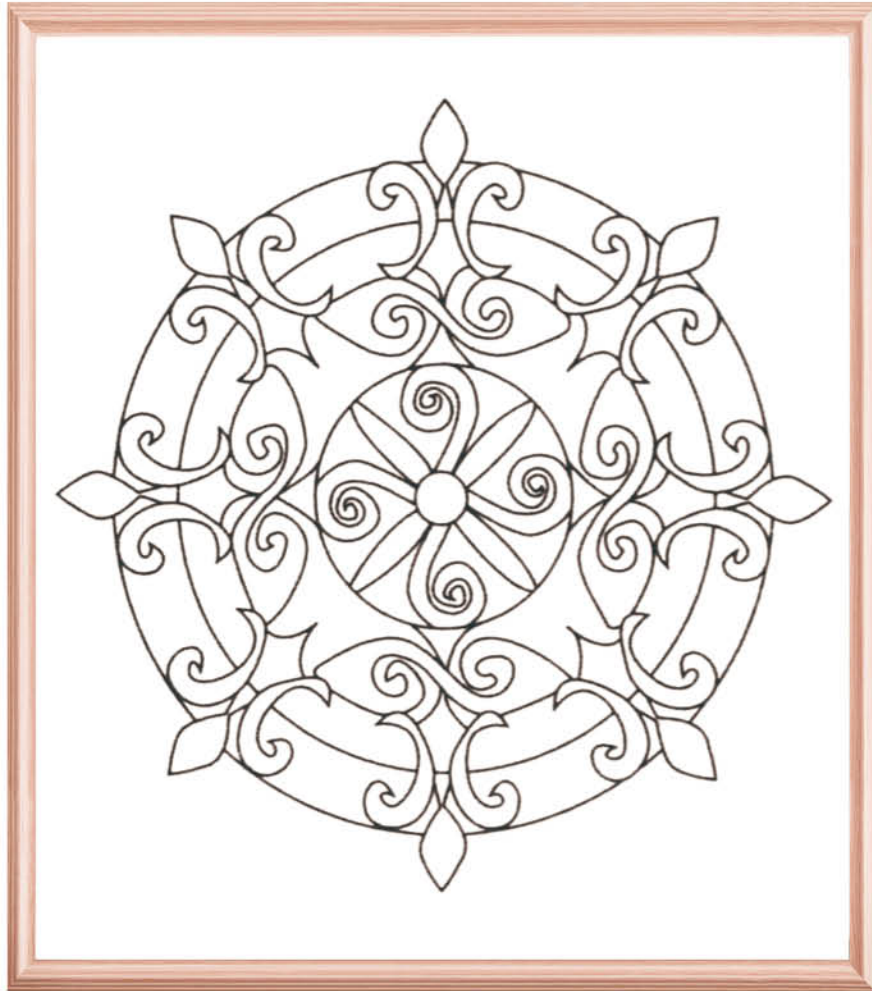
살아있을 때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선행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는 예수재.

선업을 쌓지 않은 사람도 재만 올리면 극락왕생할 수 있는 ‘통행증’을 준다는 뜻이 아닌 것을 기억하자.

예수재를 계기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수행에 정진하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다져보는 것은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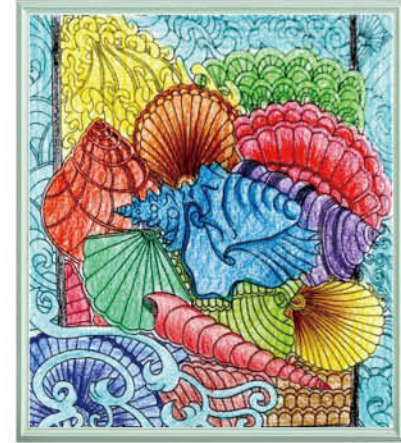
7번의 재보다 한 번의 실천으로 깨달음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 색을 칠하면서 마음이
평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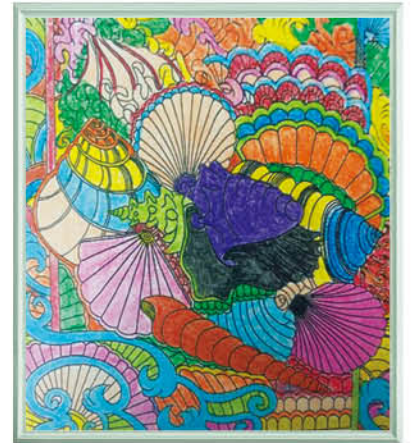
지난 호 독자 솜씨



▲ 서울 정부현 님



▲ 울산 장세화 님



▲ 대구 정해민 님

색칠해서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솜씨란에 기재 됩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대답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냐고 물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꿔 나가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내 마음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아 좋은 말과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을이 오면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요?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불자님의 사연을 모읍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위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news@chongji.or.kr

불교총지중 홈페이지에 연재글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위드다르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중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강민두	권도연	권순갑	김덕원
김도연	김봉래	김성민	김송자
김양숙	김종철	류경록	류승조
배도련	서금엽	손경옥	손재순
안한수	양진윤	유정식	이영재
이인성	이혜성	주건우	지 정
총지화	최순기	한미영	허지웅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드다르마 편집부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발행일 총기 47(2018)년 11월 1일
발행인 인선
편집책임 이선희
디자인 (주)디자인지
인쇄 동림기획
주소 06227 서울 강남구 도곡로25길 35 (역삼동)
전화 02-552-1080~3
팩스 02-552-1082

11월호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
탐하는 까닭에 급해지고
성내는 까닭에 급해지고
어리석은 까닭에 급해진다.

- 환당 대증사 -